

한우값 '고공행진' 추석까지 계속될 듯

양식어류 질병 주의보

국립수산물, 고수온·폭염 사육관리 당부

국립수산물관리원은 19일 고수온과 폭염으로 양식어류에서 각종 질병이 우려된다며 사육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고수온과 폭염이 장기화하면 양식어류는 환경변화로 말미암아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성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가두리양식장의 경우 돌돔은 이리도바이러스병, 조피볼락은 연쇄구균병과 아기미흡충증, 돔류는 트리코디나충 감염 등이 예상된다.

육상양식장과 내수면양식장에서는 넘치는 스킨카충, 뱀장어는 에드와드병, 메기는 궤양병(에어로모나스)과 트리코디나충 감염, 잉어류는 장포자충증 감염이 우려된다.

그러나 양식어류에 발생하는 질병은 사람에게에 위협성이 없다고 수산과학원은 밝혔다. 어류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양식장의 기본적인 사육관리 요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수산과학원은 사육도구(틀채, 장화 등)는 매일 소독하고 사육 수조 주변과 양식장 통로도 청소와 함께 정기적으로 소독할 것을 주문했다. 또 죽은 물고기와 질병 감염이 의심되는 어류는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수산질병관리원 등 전문 진료기관의 정기적인 진료를 받아 처방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도정안 국립수산물관리원 박사는 "양식장 구조에 맞는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는 등 평소 어류의 건강상태를 양호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여름철에 어류의 질병과 폐사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어류질병의 원인·예방, 치료 등에 대한 정보는 어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nfrdi.fdc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올해 추석 한우가 한층 비싼 몸값을 자랑할 것으로 보인다. 한우 사육두수 감소로 인해 지난해보다 20~30% 가량 상승한 한우 가격은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추석 선물 시장에는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추석 한우 1등급 도매가격은 지난 2010년 구제역 발생 이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8~9월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을 1만7000원~1만9000원으로 내다봤다. 한우 도매가격은 구제역 발생 이후 2013년 5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나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대형 유통업체 간의 경쟁 심화로 그동안 등심 소비자가격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으나, 향후 한우 도매가격 상승으로 유통업체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소비자가격이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한우 가격이 상승한다는 정부가 한우 농가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사육 두수를 줄이는 정책을 펴왔고, 특히 올해 초에 농가들이 설 수요를 겨냥해 한우 도축을 늘리면서 설 이후부터는 고급육 공급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평상시와는 달리 명절기간 한우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보통 한우 가격이 상승하면 수입육이나 돼지고기로 수요가 옮겨가지만, 명절 기간에는 선물용으로 한우를 선호하기 때문에 다른 육류 수요를 대체하기 힘들다. 한우 도매 공급물량은 약 40%가 설, 추석 등 명절에 집중돼 있는 구조다.

이에 유통업계는 높은 가격 때문에 한우 선물

사육 두수 감소 지난해보다 20~30% 올라

1등급 평균 도매가 1만7000원~1만9000원선

추석선물 시장 변수... 유통업체 선물세트 예약 판매



한우 가격의 오름세로 인해 본판매 기간보다 사전예약 기간을 활용하면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백화점 매장에서는 한우세트 등 명절 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를 시작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세트 판매가 위축되지 않도록 저마다 할인행사에 나서는 등 비상 풀판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한우 가격의 오름세로 인해 본판매 기간보다 사전예약 기간을 활용하면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명절 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 매출 비중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각 업체마다 마케팅을 강화해 한우의 가격 경쟁력은 더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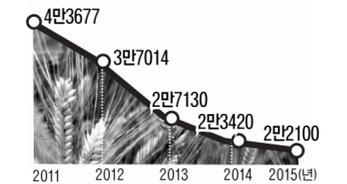
농협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300여개 매장에서 '반했어 우리한우'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할인행사 품목은 안심과 등심, 채끝 등 소비자들이 인기 많은 구이용 부위로 대형유통업체 평균 판매가격 대비 2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다.

1등급 기준 100g당 가격은 안심 8200원, 등심 6710원, 채끝 7110원 등이다.

이마트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기간(9월12일까지) 동안 한우를 직영 미트센터 사전비축으로 가격을 낮춰 작년 추석 가격에 내놓기로 했다. 인기품목인 황성한우 갈비세트(갈비3.6kg)와 일반 한우 1++갈비세트(갈비3.6kg)는 지난 추석과 같은 가격인 25만원에 판매하고, 8대 카드로 구매 시 최대 30% 할인혜택을 제공해 황성한우갈비세트의 경우 일반 갈비세트보다 저렴하다.

롯데마트는 다음달 13일까지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기간 동안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자란 한우의 1+ 등급 갈비로 제작한 '지리산 진심한우 명품 갈비세트(찜갈비 0.8kg 4개, 갈비양념 포함, 냉동)'를 10% 할인한 21만1500원에 선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우리밀 생산량 추이(단위: 톤)



우리밀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밀이 남아돌자 주정용으로까지 공급하던 상황이 불과 몇 년 사이 급격히 변한 셈이다. 올해 들어 재배면적이 늘긴 했지만 작황이 좋지 않아 부족 사태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국산밀산업협회에 따르면 우리밀 수요는 2010년대 초반 연간 2만t 정도에서 최근 약 3만t으로 50%가량 늘었다. 하지만 생산량은 2011년 4만3677t을 정점으로 2013년 1만9061t까지 줄었다가 2014년 2만3409t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요보다 7000t 이상 부족한

수요 부족 는 우리밀, 공급 부족 사태

판로 막히자 재배 줄어

지난해 7000t 모자라

안정적 수요 확보 시급

셈이다. 우리밀 생산량이 부족한 이유는 2010~2012년 생산과잉으로 판로를 찾지 못한 밀 농가들이 재배를 급격히 줄였기 때문이다. 우리밀 재배면적은 2011년 1만3044ha까지 늘었다가 2014년 7180ha로 줄었다.

우리밀이 부족해지면서 관련 업계는 원료난을 겪고 있다. 실수요 업체에 우리밀을 공급하는 한 업체는 6월 이후 정상적인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말까지는 공급

해야 하지만 원료가 부족해 두달가량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구례에 있는 공장에서 우리밀 라면·만두 등을 생산하고 있는 아이클생협은 연간 최대 6000t의 우리밀을 소비할 수 있지만 현재 3700t가량에 머물고 있다.

군대급식에 우리밀을 공급하려고 2013~2014년 책정됐던 밀 소비추진 예산(연간 약 36억원)은 우리밀 부족으로 대부분 불용처리됐고, 올해는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우리밀 공급량이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나면서 농가를 중심으로 밀 재배면적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0.7%(2014년)에 불과한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재배면적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작정 재배 면적을 늘

리는 것도 문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밀은 보리보다 수확기가 늦어 답리작의 경우 후작인 벼 재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최근 농협 경쟁작물인 보리 경우 수매가격이 좋아 밀 재배 확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정찬 국산밀산업협회 이사장은 "현재 우리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더 창출될 수 있는 우리밀 시장이 생겨나지 못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재배면적 확대를 추진하되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등을 통한 안정적인 수요 확보도 함께 필요"라고 밝혔다.

윤종규 아이클생협 기획실장은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우리밀을 수급과 관계없이 맘 놓고 생산할 수 있도록 공공수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수완지구 상가 매매
(4층중3층 / 즉시입주가능)

85평

모아 A.P.T 앞 (6천세대)
상권 밀집지역
월수익 180만
매가 3억 8천만

보 3천 용 2억5천만

상가매매

① 상무지구 정연오피 상가 (상무지구 한국은행앞)
→ 매가 1억3천만 (보 1천, 용 4천5백만)

② 광산구 월계동 1층 40평 (1층 가격 최고 저렴)
→ 매가 1억 5천만(보 800만, 용 8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2층상가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나주 혁신도시 10분!
나주역 7분!
영강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1층6칸 올림대, 2층 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①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상점건물 7층사우나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 4억5천	⑤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②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월수익 45만 매매가 9천만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피(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⑦ 광양 상아아파트15평 (상기밀집지역) 매매가 4천만
④ 서구 생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7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월수익 950만(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직접 운영시 1800만**

7층 건물

-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 2~5층 사우나, 주택
- ✓ 6~7층 설계사, 건설사

건물 올 리모델링!

매매가 14억 5천 (보 2억, 용 6억)

010-7384-7800 / 010-6670-9800